

英 블레어 지고 고든 시대 온다

‘10년 집권’ 블레어 총리 사임 의사 밝혀 고든 재무장관, 7월초쯤 차기총리 취임



재임 10년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토니 블레어(왼쪽) 영국 총리와 차기 총리로 확실시되고 있는 고든 브라운(56) 재무장관. /AP=연합뉴스

1997년 43세의 젊은 나이에 총리직에 취임한 토니 블레어 총리가 재임 10년만에 물러난다.

10년 전 대중의 열광과 지지 속에 취임한 블레어 총리는 10일 각료회의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고, 이어 자신의 지역구인 세치필드에서 유권자들에게 퇴임 청사진을 공식 발표한다.

이번이 없는 한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이 블레어의 뒤를 이어 7월 초쯤 차기 총리로 취임할 전망이다.

블레어 총리는 1997년 ‘새로운 노동당, 새로운 영국’을 기치로 내걸고 1812년 이래 영국의 최연소 총리로 당선됐다. 시대의 요구를 재빨리 포착한 그는 국유화, 소득분배 같은 전통적 좌파의 공약을 과감히 버리고 우파의 가치관을 포용하는 중도좌파 ‘제3의 길’을 내세워 18년 간의 보수당 장기 집권에 종지부를 찍었다.

블레어 총리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분배를 강조했고, 친기업적인 경제정책을 펴 10년 연속 성장하는 영국 경제의 성공 신화를 만들어냈다. 제3의 길이란 부격자와 사회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있지만, 노쇠한 나라 영국을 활기 넘치게 만든다는 데 일조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국민의 반대 여론 속에 미국 주도 이라크 전쟁에 동참함으로써 블레어의 10년은 큰 오점을 남겼다. 이라크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고, 지난해 친미 외교정책으로 블레어는 ‘부시의 푸들’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졌다.

게다가 2005년 총선 정치자금 마련을 위해 기업가들로부터 거액 정치자금을 비밀리에 대출받은 뒤 이들을 상원의원 후보로 지명했다는 의혹

이 불거지면서 현직 총리 사임 여부를 검토하며 경찰의 조사를 받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처음 ‘발비’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블레어 총리는 ‘블라이어(거짓말장이 블레어)’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었다.

노동당 출신 최장수 총리의 영예를 갖고 있는 블레어 총리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의 기자 필립 스티븐스는 “블레어는 당대의 가장 성공적인 정치인”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역사학자인 도미니크 샌드브룩은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스캔들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듯이 블레어는 이라크전의 그림자에 빠져나오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범도 안했는데…佛 “反사르코지” 후폭풍

극좌파 시위·차량 방화·대학 휴업 등 잇따라 사르코지 “호화 요트휴가, 사과할 이유 없다”

강력한 개혁 정책을 예고한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 니콜라 사르코지가 취임 하기도 전에 좌파와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선 결선일인 6일 밤부터 극좌파 주도의 시위가 파리와 지방 도시들에서 잇따랐다. 9일 밤에는 파리 대학이 라탱 구역의 생 미셸 거리에서 300~400 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처음엔 극우파 지지자들의 행진에 반발해서 모였으나, 곧 바로 반(反) 사르코지 시위로 변했다.

시위대는 ‘사르코지 파시스트’, ‘경찰은 도처에, 정의는 어디에도 없다’고 외쳤고, 현장에서 100명 이상이 체포됐다.

했다. 학생 500여 명은 휴업을 결의한 뒤, 캠퍼스로 통하는 통로를 봉쇄하고 강의가 중단됐다고 선언했다.

고등교육 담당 각료인 프랑수아 굴라르는 대학 총장에게 강의가 계속되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사르코지는 선거 공약으로 고등교육기관 개혁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공언했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대학 자치 확대를 위한 입법, 직업 교육 강화, 외부로부터 자금 마련 장려, 성적 불량 학생 퇴출 등이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의 주요 도시들에서 사르코지의 대통령 당선에 항의하는 시위와 차량 방화가 사흘째 이어졌다.

6일 밤 시위가 처음으로 터졌던 파리의 바스티유 광장에서는 8일 밤에도 200~300여 명이 ‘파시스트 사르

코’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파리 교외의 한 유아원에서도 방화가 있었고, 남동부 도시 리옹에서는 집권당 사용 건물이 화염병 공격을 당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시위·방화 규모는 줄어들고 있다.

프랑수아 바루앵 내무장관은 “응답할 수 없는 상황이 사흘째 지속됐다”며 정치적 동기가 명백히 개입된 극좌파의 폭력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8일 밤 승용차 200여 대가 불타고 80명 이상이 검거됐다고 밝혔다.

한편 재벌 소유의 호화 요트에서 휴가를 즐긴다고 비판받는 사르코지는 이날 몰타에서 “왜 논쟁이 이는 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르코지는 자신은 납세자들의 돈을 쓰지 않았다며 “사과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요트 주인인 뱅상 불로레와는 20년 동안 알고 지내는 사이라며 프랑스인은 정치 활동과 실재를 구별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일회성 열차시험운행 합의

北, 상설 군사보장 향후 카드로 활용할 듯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남북이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비록 일회성이지만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에 대한 군사보장에 사실상 합의했다.

뿐만 이후 반세기 이상 막혔던 남북 간 협력이 풀리게 된 것이다.

제5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남측 대변인인 문성욱 대령(국방부 북한정책팀장)은 9일 판문점 북측구역 통일각에서 이틀째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5월 17일 열차 시험 운행에 필요한 군사보장조치를 마련한다는 데 대해서 양측이 견해차가 없었다”고 말했다.

우리 측이 지속적 효력을 갖는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보장합의서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지만 오는 17일로 예정된 철도 시험운행을 위한 군사보장에는 이견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북측이 이 같이 일회성 군사보장에 사실상 동의한 것은 시험운행 직전에 불발된 지난해의 전철을 되풀이할 명

분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특히 지난해 18~22일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오는 17일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하기로 하는 한편, 이를 위해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 협력한다’고 합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번엔 열차 시험운행이 무산될 경우 잃게 될 실리도 염두에 뒀을 것으로 보인다.

남측이 사실상 남북 열차 시험운행을 조건으로 지원을 약속한 8천만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는 물론, 향후 쌀 차관 지원 등 각종 남북지원의 토대가 되는 남한 내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측은 그러나 상설적 군사보장을 요구하는 우리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일회성 보장을 고수했다.

북측이 이처럼 일회성 보장을 고수하는 것은 향후 남북 군사당국 간 각종 협상에서 사실 군사보장이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는 데 대체적인 분석이 다.

북핵에 가위 눌린 라이스·힐

美 언론·네오콘·우파, 대북정책 선회 집중 비판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가 북핵 관문을 넘지 못해 허허거리고 있다.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이른바 불량국가들과의 ‘양자대화 불용’이라는 조지 부시 1기 행정부의 대원칙을 깨가면서까지 북한에 많은 양보를 했지만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 북한자금 송금 문제를 이유로 2·13 핵폐기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두 사람에게 대한 비난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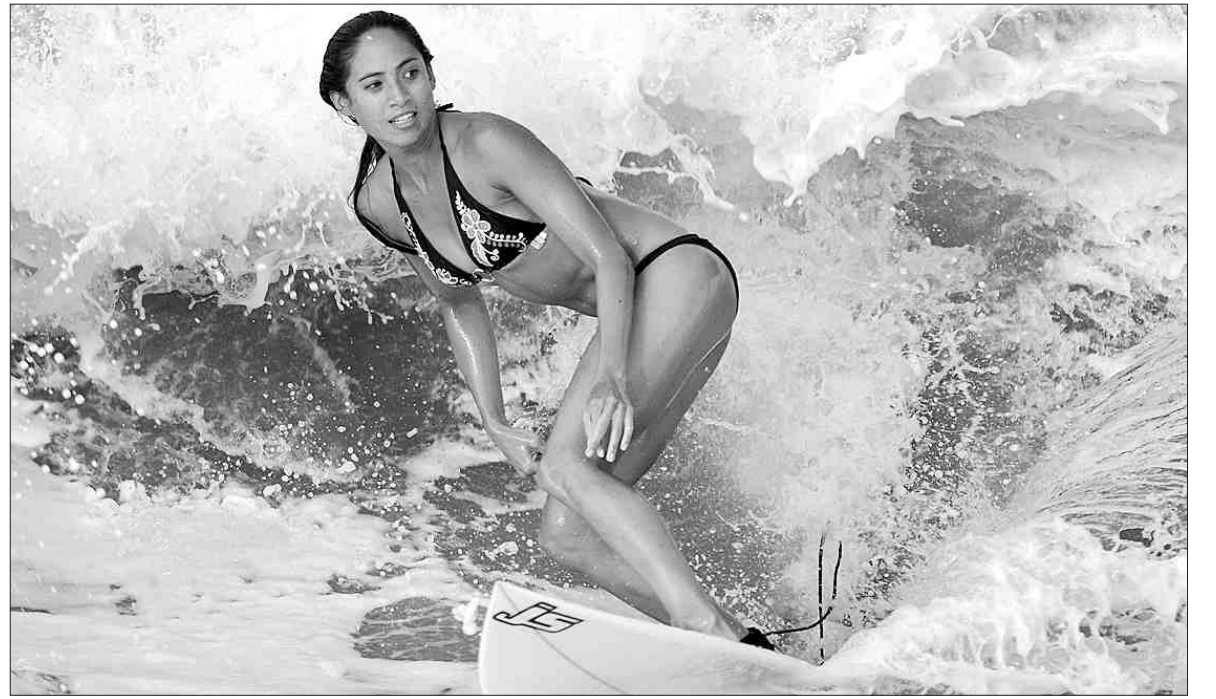
부시 행정부 외교정책을 지지해온 공화당의 조지 보이노비치 상원의원도 9일 “솔직히 말해 지금 미 정부의 정책은 (양자를 넘어) 다자주의에 가깝다”면서 “이런 정책은 집권 1기부터 시작해야 했다”고 무원칙성을 꼬집었다.

◇美 주요언론들 연일 비판=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 유에스뉴스&월드리포트 등 주요

언론들은 북한의 ‘지연 전술’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8일 사설에서 미국이 북한 요구에 따라 BDA에 동결된 북한자금 전액을 출처 불문하고 해제했지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고, 북한은 재무부가 국제금융시장에 세운 금가치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데도 부시 행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북한이 2·13 합의 이행 시한을 어겼지만 북한이 핵 일자로만 폐쇄하면 그 만한 가치가 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뉴욕타임스는 9일 북한이 참을성 있는 사람을 화나게 만들 정도로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으며 2·13 합의에 명시된 핵 불능화와 폐기, 비확화 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백악관을 비판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한 파도타기!

9일(현지시간) 미국 동남부 해상에서 올해 첫 열대성 폭풍우 안드레아(Andrea)가 발생한 가운데 플로리다주 주피터 해안에서 파도타기 선수 제시카 윌리엄스가 거대한 파도를 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한국 어부들 고의로 고래 잡는다”

英 과학자 “보고보다 2배 포획”

한국 어부들이 1999년부터 2003년 사이에 458마리의 밍크고래를 잡은 것으로 당국에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2배 가까운 수의 고래가 포획됐으며 다른 어종을 포획하던 도중에 잡혔다가 일부

러 고래를 노린 것으로 의심된다. 미국 연구진의 논문이 9일 발표됐다.

영국의 과학전문 주간지 뉴사이언티스트 12일자 최신훈호에 실린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 스킵 베이커 박사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같은 기간에 실제로 잡힌 것으로

추산되는 밍크고래의 수는 827마리다.

연구진은 한국 시장에서 팔리는 고래고기를 구입한 다음 동물 DNA 유전자의 특징적인 부분을 찾아내는 ‘핑거프린팅’ 기법을 이용해 고래의 종을 구분하고 고래의 개체 수와 1999년부터 2003년 사이에 우연히 걸린 고래 수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피리AP=연합뉴스

면학부위기 가장 좋은 학원 / 1교수 1과목 전문강사진 / 주말보강없이 2개월 책임 완성

9월 9일 경찰 시험대비

합격특강

전/의경 폐지확정 2008년부터 채용규모 5,000명 이상 증원(예상) 지금이 기회! 개강 6월 1일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후 서울경찰전문학원 북구청 맞은편

(062) 251-7959

국비무료모집

과정	교육내용
기업사무자동화인력양성	윈도우XP, 워드, 엑셀, 컴퓨터활용능력 등
영세자영업자 교육(07/6/1~3개월)	다양한 기능습득(시간:9:10~13:00)

*영세자영업자: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보험설계사, 학습지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등) 전액 국비교육, 교재료제공, 수당지급.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재직자과정(교육기간)	교육내용(교육시간)
주택관리사 주말반(토, 일)	민법, 회계원리, 관계법규, 관리실무, 시설개론
교육기간: 5/12~7/1	(토14:00-20:00, 일 10:00-17:00)
공인중개사(월~토)	민법, 법령, 세법, 공시법, 부동산학개론, 공법
교육기간: 5/14~7/9	(월~금:19:00-22:30, 토 15:00-18:30)
주택관리사(월~토)	민법, 회계원리, 관계법규, 관리실무, 시설개론
교육기간: 6/4~7/31	(월~금:19:00-22:30, 토:15:00-18:30)

개강 5/14

정보회기초1 엑셀, 파워포인트(월/수/금 19:00-21:00)
정보회기초2 엑셀, 파워포인트(월/수/금 19:00-21:00)

기타 사항

- 모집대상: 고용보험가입 직장인 선착순 정원에 모집
- 기타사항: 수료 후 100%~80(정보회기초과정은 100%)환급
- 접수: 수강절차: 훈련상담→훈련수강신청서 작성→훈련기관에 제출→수강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자격취득

=선배 公務員들의 지혜로운 선택 역시「無等」이었습니다.=

7.9 공무원 완전 대비

행정직	교육직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	복합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호직	소방직	토목직	건축직
-----	-----	-----	-----	-----	-----	-----	-----	-----	-----	-----	-----	-----

시험 안내 ■서울 지방직: 7월 8일 시행 1723명 ■전남: 6월 23일 161명
■전북 지방직: 9월 8일 9급 행정직 131명 ■전남: 행정직 후반기

* 후반기 각 시·도별 9급 교육행정직 9월~11월 시행, 합격응이 *

개강: 6월 1일과 15일 주·야(총합)반 모집 *정규: 10월, 12월, 2월, 4월 3개월 완성 *핵심: 이론+문제풀이반 4주 완성반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충안초교 후문앞) ☎ 222-4560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노동부 인정 직업능력훈련기관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6월 1일 첫진도 개강

고용보험제직근로자 수강료 환급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인출신 143명 합격!

본원 ☎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뒤)
첨단점 ☎ 971-0002 (빅마트 청담점 옆 광주은행 4F)

현대직업전문학교

☎ 224-4560, 224-4580, 232-1088

* 위치: 전남고 권-편 김재규 경찰청 3층 * http://www.hdedu.co.kr

Speed 인생역전! 대학편입, 의치학, 한의학전문대학원

합격생 70% 김영출신

의치학, 한의학전문대학원대비반 개강 6월 1일

약대/한의대/수의대 편입대비반

08년 편입시험 대비반(일반편입/학사편입)

★수준높은 맞춤 강사: 기초-이론-적용-핵심-심화

개설과목: 영어, 언어추론, 생물, 화학, 유기화학, 물리, 한문, 한의학

그 동안 김영출신 11만 5천여명 합격 www.kjkimyoung.co.kr

김영(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 227-8088